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음 8월 9일) 제19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發 드론축구, 경기규칙 만든다

▶ 전국 12개 시도지부장들과 회의

11월 예정 전국대회
 축구공·경기장 규격
 게임규정 개선 등 논의
 시, 다양한 의견 수렴
 드론축구 저변확대 총력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 저변확대와 세계화를 위해 공식 경기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대한드론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전주시장실에서 협회 산하 전국 12개 시·도지부장들과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로 예정된 '2017 KOREA 드론축구 페스티벌'(협회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과 드론축구공 및 경기장 규격, 게임규정 개선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드론축구 저변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을 아우르는 시·도 조직이 결성된 협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시·도 조직을 구성하고 드론축구를 알리는데 힘써준 각 지방정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진행될 공식 협회 설립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한, 참석자들과 함께 드론축구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드론축구공 개선방안과 경기장 규격 등 개선방안, 게임규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



김제 투자 5개 우량기업 협약 체결 27일 김제시에 투자하는 (주)광스틸, (주)진우에스엠씨, (주)신흥티지, 삼동허브(주), 한우물영농조합법인 등 5개사와 진흥 정무부지사, 이건설 김제시장, 정호영 도의회부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2면>

의했다. 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최적의 경기 볼과 경기장 규격, 드론축구 개선방안을 찾아 드론축구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세계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레저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레저스포츠와 산업화의 투트랙 전략으로 드론축구 붐 조성에도 나서고, 드론축구를 통한 관련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시는 드론축구 지적재산권 확립과 보호, 드론축구 세계화의 체계적 추진, 전주만의 특화된 첨단 레저스포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전국 시·도 조직을 완벽한 협회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문체부 등록을 통한 대한드론축구협회 공식 출범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향후 대한드론축구협회를 현 FIFA와 같은 세계 연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아시아 드론축구 선수권 대회 및 월드컵 개최 등 드론축구 세계화를 향한 투자

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전 세계 드론 제조시장의 90%를 중국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 차별화된 아이템과 기술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전주시는 물론 대한민국 드론산업이 가야할 길"이라며 "레저스포츠와 전주시가 자랑하는 탄소융합기술, 첨단 드론기술 등을 융·복합한 드론축구를 세계인의 레저스포츠로 발전시켜 드론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전주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송 지사, 추석 연휴 동안 도보로 '전북 자존감' 충전

송하진 도지사가 열흘간 이어지는 올 추석 장기 연휴기간동안(주말과 휴일 포함) 전북산하 200리길 따라 걷기에 나선다. 일명 전북 자존감 체험과 충전의 여정이다. 일상적인 도정 현안과 업무에서 벗어나 직접 전북의 산과 강, 바다를 느끼고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를 시행에 옮기기로 한 것이다.

공식적인 스케줄에서 잠시 벗어나 걸어다니며 직접 전북 산하의 멋과 아름다움을 돌아보고, 도정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장도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이다.

우선 8일 오전 7시 아침 일찍 전주 건지산을 찾는다. 최명희 문화비에서 출발해 건지산을 올라 소리문화의전당 후문쪽으로 나오는 일이다. 신정일 우리 땅 걷기 이사가 길잡이로 나선다. 건지산을 품고 아우르며 내년에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전주의 역사와 찬란했던 옛 기상, 자존감을 되찾아볼 계획이다.

전북도는 현재 내년(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사업과 도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송 지사는 이어 10월 2일에는 임실 삼진강변으로 길을 잡아 나선다.

진메마을과 천담마을, 구담마을, 장구목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잡아 초가를 풍취와 멋이 녹아있고, 문화의 향기가 살아있는 길을 따라간다.

삼진강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과 안도현시인 등 문학인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문화와 함께 보듬어보는 예방 전북의 기운을 충전하는 코스이다. 시(詩)처

럼 익어가는 삼진강의 정취를 자긍심으로 담아낸다. 송 지사는 6일 오전에는 진안 고원길을 따른다. 전북도민들의 가장 중요한 식수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용담호를 끼고 길을 잡아오는 일정이다.

고원길은 진안군에 있는 진안 고원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보 문화 여행길. 마을길과 고갯길, 숲길, 옛길, 논길, 밭길, 물길 등을 이은 도보길이다. 100여개 마을과 50여개 고개를 지나 마을과 마을의 문화를 이어 주는 길로 현재 구간별로 다듬고 있는 중이다.

송지사의 마지막 길 따라 일정은 8일 군산 신시도 구불길을 거쳐 고군산군도를 향한다. 신시도와 무너도, 장자도, 선유도를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현장을 짚어보는 코스. 이미 완공된 고군산대교를 비롯해 개통된 구간(신시~무너)과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구간 상황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고군산군도는 60여개의 크고 작은 섬(유인도 16개)들이 대열을 이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곳. 신선들이 노닐던 곳으로 유명하다.

전북도는 새만금내부개발과 연동해 고군산군도를 국내는 물론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송하진 지사는 "평소 생각해왔던 바를 시간이 될 때 실천에 옮겨보려고 한 것"이라며 "도민들과 함께 전북 뚝 찾기와 연계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고 싶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함께 걸으면서 전북(산하)을 의미 있게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조업금지구역 내 싸늘이 조업 어민 피해 속출

박재만 도의원, "도내 연안 멸치·전어 등 가을 성어기 맞아 빈번히 발생"

멸치, 전어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도계 월선조업과 조업금지지역을 침범하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사천)은 지난 8월 말 서해안 불법어업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여전히 통영, 여수 일원의 연안선망어선이 조업금지

구역인 도내 연안에 불법으로 침범해 싸늘이 조업하고 있어 도내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지자체, 해경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연안에 멸치와 전어 성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인근 전남과 충남 지역의 연안선망어선이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조업을 실시하고 소형선망의 조업금지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어선 1척이 하루 20톤 가량을 포획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협 위판장 및 재래시장 등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불법어업 40건을 단속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4면 -전주시, 관광택시 본격 운행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도시 "익산"
 31만 익산시민과 함께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로
 그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